

# 鶴来打刃物

## 歴史と特色

鶴来町は、やい刃の劔(つるぎ)と書かれたほど、刃物鍛冶が盛んで、江戸時代には加賀藩御用鍛冶をつとめた刀工一鉄も出た。また、白山麓と平野部との物資の集散地としても栄えた町で、農耕用から山林用、家庭用まで幅広い製品が作られていた。

明治以降も数軒あったが、現在"火作り"している鍛冶屋は1軒だけで、注文に応じ手作りの伝統を今に伝えている。

技法はほとんど昔のままで、松炭がコークス、ふいごが送風機に代わったぐらいで、稀少な野鍛冶である。

## 역사와 특색

쓰루기마치는 '검(일본어 발음 쓰루기)' 이라고도 쓰여질 만큼, 에도시대부터 칼 대장일이 성행했다. 또한 물자의 집산지로 번성했던 지역으로, 농경용에서 산림용, 가정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이 만들어져 왔다. 현존하는 대장간은 한 곳밖에 없으며, 주문을 받아 만드는 손작업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.

### ▶ 情報 정보

主な生産地(주요 생산지)	白山市(하쿠산시)
主な製品名(주요 제품명)	クワ、カマ、ナタ(괘이, 낫, 손도끼)
主な生産者(주요 생산자)	太田打刃物製作所(오타우치하모노 제작소) 〒920-2121 白山市鶴来本町4-2-5(하쿠산시 쓰루기혼마치 4-2-5) TEL (076) 272-0111

## 手捺染型彫刻

## 歴史と特色

江戸で袷に小紋がつけられたのは1750年頃と言われ、その後金沢でも始められ文化年間(1800年頃)には型付職人14人と記録も残っており、型紙も彫られていたと思われる。

武家や町人の袷や慰斗目用として、小さな形で構成された模様で、型紙を使って染め上げられたが、その後次第に改良され、小柄、中柄、模様の大小などを彫り込み、加賀小紋として現在も伝えられている。また、明治の後半、友禅柄が型で染められるようになり、より複雑な型が彫られ、一枚の着物に400枚以上の型を作る場合もある。一色に1枚の型紙が必要のため、正確に同じ模様を何枚も彫り、染めを重ね何枚か続けて連続模様にするなど高度な技術を誇るが、型紙職人は細かい、根気のいる仕事の割に地味な裏方であるため、後継者は少ない。型紙に使う紙は伊勢形紙を使用し、文様を彫刻した後、漆で囲めたものと、漆を用いて紗とはり固めたものがある。

## 역사와 특색

봉건시대에 고문이라고 불리는 간편한 기모노의 형지제작이 시작됐다. 근대에 접어들어 유젠무늬를 형지로 염색하게 되면서 한가지 색에 한장의 형지가 필요해졌다. 이에 따라 한 벌의 기모노를 염색하는 데는, 똑같은 문양을 지닌 수백 장의 형지를 만드는 기술이 필요하게 됐다. 재료는 전통종이 와시를 사용하며, 옷칠과 천으로 발라 굳힌다.

### ▶ 情報 정보

主な生産地(주요 생산지)	金沢市(가나자와시)
主な製品名(주요 제품명)	手捺染型紙(손발염형지)
主な生産者(주요 생산자)	安田染型店(아사다 염형점) 〒920-0865 金沢市長町2-7-19(가나자와시 나가마치 2-7-19) TEL (076) 223-3886